

#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6. 1. 6(수)		
배포일	2016. 1. 6(수)	홍보담당	기획처 홍보팀 (880-5054, 9072)
담당부서	입학본부	문의	입학본부(880-5009)

## 제목: 서울대학교, 고교-대학 연계 교육포럼('샤'교육 포럼) 개최

- 서울대학교(총장 성낙인)는 입학본부 주관으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고교-대학 연계 교육 포럼(‘샤’ 교육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의 별칭은 ‘샤’ 교육 포럼으로, ‘샤’는 서울대 정문 모양으로 서울대학교를 상징하며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이 추구하는 교육과 입학전형의 비전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대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공교육 역량 강화 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교육포럼을 처음으로 마련하였다.
- 이번 포럼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개최할 예정이며, 첫 포럼은 2016년 1월 7일(수) 대구에서 열린다. ‘샤’ 교육 포럼은 지역별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참가 문의는 해당 지역 시·도 교육청에 하면 된다.
- ‘샤’ 교육 포럼은 <학생부종합전형의 현재와 미래>라는 대주제하에 1부에서 ‘학생부종합전형과 학교 교육’을 주제로 서울대학교 권오현 입학본부장이 발제를 하고 해당 권역 교육청의 협조로 구성된 교사 등 전문가 집단이 토론을 한다.
- 2부에서는 해당 권역이 선정한 주제에 대해 발제와 토론을 이어나가는 방식

으로 진행되며 특히, 학생부종합전형과 관련하여 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업의 변화나 교육과정 운영, 진로 및 진학지도 등의 주제를 두고 실제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학생부종합전형이 보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표] ‘샤’ 교육 포럼 개최 일정**

개최일	시간	해당 지역	개최지	장소
'16. 01. 07.(목)		경남·북, 부산, 대구, 울산	대구	대구학생문화센터
'16. 01. 08.(금)	13:00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서울	경기여자고등학교
'16. 01. 12.(화)	~	전남·북, 광주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
'16. 01. 13.(수)	17:30	충남·북, 대전, 세종	대전	대전교육과학연구원
'16. 02. 12.(금)		제주	제주	제주학생문화원

[붙임 1] 서울대학교 고교-대학 연계 교육 포럼(‘샤’교육 포럼) 계획

[붙임 2] 포럼 안내문(입학본부장)

## 서울대학교 고교-대학 연계 교육 포럼('샤'교육 포럼) 계획

- 1 취지
  - 서울대와 각 시·도 교육청이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전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함
  -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 및 수업 개선에 이바지하는 대입 전형으로서의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에 대한 개선 방향을 모색함
- 2 경과
  - 2015년 5월: 전국 17개 시·도 진학담당 장학사 협의회에서 학생부종합전형 및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을 공유
  - 2015년 8월: '샤'교육 포럼 기획을 위한 전국 17개 시·도 진학담당 장학사 협의회 실시. 포럼의 주제, 진행 방식 합의
  - 2015년 10월: '샤'교육 포럼 계획안 마련
  - 2015년 11월 ~ 12월: 주제 및 패널 선정을 위한 권역별 기획 간담회 개최

### 3 대주제 “학생부종합전형의 현재와 미래”

- 4 행사 개요
  - 전국을 5개 권역으로 구분
  - 대상: 권역별 500 ~ 1,000명의 교사

개최일	시간	해당 지역	개최지	장소
'16. 01. 07.(목)		경남·북, 부산, 대구, 울산	대구	대구학생문화센터
'16. 01. 08.(금)	13:00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서울	경기여자고등학교
'16. 01. 12.(화)	~	전남·북, 광주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
'16. 01. 13.(수)	17:30	충남·북, 대전, 세종	대전	대전교육과학연구원
'16. 02. 12.(금)		제주	제주	제주학생문화원

## 5 진행 방식

### [1부]

- 주제: 학생부종합전형과 학교 교육
- 발제자: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
- 토론자: 시·도교육청 교사 또는 전문직
- 진행 순서: 발제 → 토론 → 종합공개토론(청중 포함)

### [2부]

- 주제: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권역별 특색에 맞는 주제 선정
- 발제 및 토론자: 시·도교육청 교사 또는 전문직
- 진행 순서: 주제별 발제 → 주제별 토론 → 종합공개토론(청중 포함)

## 6 권역별 주제

해당 지역	주제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 1주제: 학생부 종합전형과 진로기반 진학지도
	· 2주제: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3주제: 인성중심 협력학습을 통한 공동체 가치 구현
	· 4주제: 학생부종합전형과 수업과 평가방법의 변화
서울, 경기 인천, 강원	· 1주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학생부종합전형
	· 2주제: 교육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진로진학지도 방안
	· 3주제: 꿈과 끼를 살리는 진로교육을 통한 전공적합성 추구방안
	· 4주제: 진로집중과정과 학생부 종합전형 연착륙
광주, 전북 전남	· 1주제: 학생부종합전형이 교실 수업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 2주제: 학생부종합전형이 학생평가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 3주제: 진로집중형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필요성 및 문제점은?
대전, 세종 충북, 충남	· 1주제: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의 다양한 활동 방안
	· 2주제: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다양화 방안
	· 3주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방법
	· 4주제: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교교육의 변화
제주	· 1주제:
	· 2주제: (추후 확정)
	· 3주제:

7 기대  
효과

- 학생부종합전형의 발전 및 정착을 위한 노력 확산
- 학생부종합전형의 교육적 가치 공유와 확산을 통한 공교육 역량 강화
-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한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 및 수업 개선 유도
- 고교-대학 연계교육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인재 양성 방안 수립에 기여

## [붙임 2] 포럼 안내문(입학본부장)

앞으로 대학입시는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생활의 자연스런 반영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가야 합니다. 한국의 교육풍토 속에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 지금까지 학교 교육의 많은 문제들이 대학입시를 경쟁적으로 준비하는 데서 발생하였기에,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사고구조에서 벗어나는 환경을 차근차근 마련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입시를 준비하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 학생이 스스로 탐구하고 체험하며 역량과 소양을 쌓아가고, 대학이 이를 전형에서 자연스레 평가하는 형태가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려면 학생이 지닌 능력만을 확인하는 성취도가 아니라, 다양한 역량을 균형 있게 갖춘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형방식이 필요하게 되는데, 저는 그 해답을 학생부종합전형이 제공한다고 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수능처럼 교과 점수를 단순히 합산하는 방식으로는 평가할 수 없었던 지원자의 학업 능력과 태도, 인성과 성장가능성을 함께 진단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닙니다. 아울러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학교와 대학은 서로에게 진화를 위한 좋은 자극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전망과 기대가 아직 엇갈리는 게 사실입니다. 이 전형이 갖는 긍정적 효과가 크지만 일부 부정적인 견해도 경청해야 합니다. 이에 서울대는 이번 포럼을 통하여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전형 운영에서 세심하게 고민해야 할 점을 파악하여, 고교 대학 연계성에 기반을 두는 대입전형이 안정화 되는 데 이바지하려 합니다.

포럼 준비를 위한 전국 시·도 교육청 담당 장학사 모임을 지난 2015년 여름에 갖고 의견을 구한 결과, 1부는 서울대에서 발제를 맡고, 2부는 각 시·도의 현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이 포럼이 있기까지 깊은 관심 속에 진행 방식에 관한 고견을 들려주시고, 학생부종합전형의 현안 주제와 패널 여러분들을 선정해 주신 전국 시·도교육청 관계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말 입시 지도에 바쁘신 가운데 옥고를 주신 패널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교육관계자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교육이 여러분의 관심 속에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2016년 1월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 권 오 현